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② 정쟁과 근대적 정치관을 넘어

배려·협력하는 '상생의 정치' 아쉽다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사회엔 민주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정쟁이 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탄핵정국' 속에서 우리는 정쟁의 극단을 볼 수 있었다.



상생의 정치아발로 정쟁과 근대적 정치관을 극복하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자우 국회의원사무보회의장 무희일부 자류사지

자연 정복한 근대이후 인간끼리 다툼 늘어나 권력투쟁 이익추구 본능 탓 합리적 해결 안돼 '보수' '진보' 떠나 상대방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편에서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상 조유의 대통령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의회주체라고 폄하하지 않나, 하여간 양쪽 모두 상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신 투쟁대상자로 여겨왔던 것 같다. 혹자는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어서 그것은 정쟁이 민주주의 발전을 동반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벌어졌던 시끄러움은 배타적인 정쟁만 부추겼을 뿐 정치의 본질로부터는 벗어나 있었다. 각 정당엔 비록 '보수'나 '진보'나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권력투쟁'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숨어서 이 투쟁을 자신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자신의 이익추구와 권력투쟁을 통해 사회를 혼란의 장으로 만들까? 홉스(T. Hobbes)의 언설은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그에 의하면, 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는 늑대(Homo Homini Lupus)"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근거를 더 이상 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를 괴멸하던 자연을 정복한 근대사회에서는,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가 되고 또 타인을 자기와 대항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나쁘고 별로 나온 것이 없는 상대방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근대적 정치관을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 권력투쟁을 승인한 채 단지 사회의 파란을 막기 위해 그것을 제도적·경제적으로 '조정' 하는 것을 정치의 일무로 삼는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투쟁을 더욱 강화시킨다. 즉 이익의 조정을 목표로 할 때 권력투쟁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뿐이다.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나, 한국전쟁 당시 가장 지엄했던 전투는 바로 휴전을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따라서 이기심과 권력투쟁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조정하려는 근대적 정치관은 사실 미봉해에 불과하다. 아무리 조정을 위한 제도화가 진전된다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을 경의대상·배려대상이나 아니라 자신의 경쟁대상·지배 대상으로 보는 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투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거 고대인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종세인들은 신을 받들어서서 결속함을 유지하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느꼈었다.

하지만 자연이 정복되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신 또한 그 신비성을 잃어버려서 경의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대에서는, 인간은 타인을 경의하고 자신을 반성함으로써만 투쟁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얼마나 중심인자 혹은 옳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란 바로 이럴 때 가능하다. 즉 타인을 배척해야 할 대상, 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와 함께 공동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의 태도이다.

이번 총선에서 40%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권력투쟁'과 세 대결로 벌어지는 선거에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번 총선 후 사회가 되고 있는 '상생의 정치'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정치의 태도를 기대해 본다.

이동수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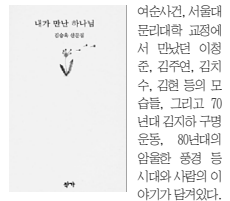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자인들과의 출간기념 모임사진. 왼쪽부터 최하림, 김승옥, 부인

24년 절필 김승옥씨 활동재개 첫 산문집 '내가 만난 하나님' 펴내

『투진기행』의 작가 김승옥(83)씨가 산문집 '내가 만난 하나님'(작가·사단)을 내놓으며 문학활동을 재개했다.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생명연습'으로 등단한 그는 '서울, 1964년 겨울' '투진기행' 등을 통해 새로운 감수성과 파격적인 문장을 선보이며 우리 문단에 새 바람을 불고 있었다. 그는 1980년 '동아일보'에 연재중이던 소설 '먼지의 발' 일부가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되자 펜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작가의 온전한 집필과 절필의 시간동안에도 슬한 후배 소설가들과 문학 청년들의 마음과 가슴을 사로잡았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단편소설의 고전으로 빛바래지 않은 신화를 보여주고 있다.

절필후 개신교에 입교, 신학공부에 몰두하면서 소설가 김승옥을 기다리던 많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문학적 배반을 했던 그는 지난해 2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많은 사람들



현세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그가 발하기를 불편해해 작가의 입을 통해 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산문집은 내용만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쇠위진 무거운 무게를 뚝뚝 털어내고 과거와 현재를 오묘하게 묶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저녁 서울 인사동 한식집에서 작

하나님 영접~어린시절까지 과거와 현재 오롯이 담아내

을 모임을 가졌다. 그가 김지하, 김주익, 김지수, 최하림, 김병익 등 옛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해 출판사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산문집에서 김승옥과 함께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발간이 힘들어하는 오랜 친구를 대신해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하림씨는 '소설 김(敬)'을 보는 순간 변칙에는 감상에 너무 놀랐다. 그때 처음 내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는 문장 공부를 다시 했다며 '내가 소설을 쓴 것은 내게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남인수보다 남인수 노래를 절찬력 가수 김승옥, 초기 문학과 지성사 책 표지를 그려줬던 화가 김승옥, 만능 스포츠맨 김승옥, 글한때 김승옥을 유쾌하게 떠올렸다.

후배인 문학평론가 정호태 연세대 교수는 자신의 문학과 신체의 문장에 맞닿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동석한 김지하씨는 '김승옥이 언젠가는 빛나는 글을 다시 쓸 줄 믿고 있었다'며 날마다 김승옥을 내비치더니 김씨에게 갑자기 '씨'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가 김지하, 김주익, 김지수, 최하림, 김병익 등 옛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해 출판사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산문집에서 김승옥과 함께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발간이 힘들어하는 오랜 친구를 대신해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하림씨는 '소설 김(敬)'을 보는 순간 변칙에는 감상에 너무 놀랐다. 그때 처음 내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는 문장 공부를 다시 했다며 '내가 소설을 쓴 것은 내게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남인수보다 남인수 노래를 절찬력 가수 김승옥, 초기 문학과 지성사 책 표지를 그려줬던 화가 김승옥, 만능 스포츠맨 김승옥, 글한때 김승옥을 유쾌하게 떠올렸다.

후배인 문학평론가 정호태 연세대 교수는 자신의 문학과 신체의 문장에 맞닿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동석한 김지하씨는 '김승옥이 언젠가는 빛나는 글을 다시 쓸 줄 믿고 있었다'며 날마다 김승옥을 내비치더니 김씨에게 갑자기 '씨'라고 고함을 질렀다.

최한미기자 chm@munhwa.co.kr

편집-홍익기자 impro@

벽지 MURATEX
031-983-1516